

●일일스터디_표준안

서유진 / SBS / 2026.06.04

순번	기사 제목/뉴스 헤드라인	분야	비고
1	서울서 '5선' 고지...강남3구·한강벨트가 갈랐다	정치	주요뉴스
2	"일단 50명" 줄줄이 분통...뿔난 유권자 피해 '허둥지둥'	정치	주요뉴스

(1)기사/뉴스요약

<앵커>

바로 서울시장 업무에 복귀한 오세훈 후보는 "견제와 균형이라는 대원칙을 시민들이 세워준 것"이란 당선 소감을 밝혔습니다. 민주당 정원오 후보는 자신이 부족했던 탓이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. 두 사람의 운명을 가른 건 '강남3구'와 '한강벨트'의 표심으로 분석됩니다.

계속해서 박재연 기자의 보도입니다.

<기자>

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당선 소감에서 대한민국이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지지 않도록 시민들이 서울을 민주주의의 마지막 안전판으로 남겨주셨다고 말했습니다.

[오세훈/서울시장 당선인 :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다시 한번 확고하게 세워주셨습니다.]

시청으로 돌아가 서울시장 업무에 복귀해 첫 일정은 안전 대책 점검 회의였습니다.

GTX-A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에 대해선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,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엔 전반적인 안전 점검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.

[오세훈/서울시장 당선인 : 서울 시내 모든 노후 인프라와 공사장을 대상으로 고강도 특별 안전 점검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.]

3선 서울 성동구청장 출신으로 이른바 '명픽', '일 잘하는 행정가'를 내세웠던 민주당 정원오 후보는 패배를 인정했습니다.

[정원오/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: 시민 여러분의 선택을 무겁고 겸허히 받들겠습니다. 제가 부족했습니다. 모든 것이 제 탓입니다.]

오 후보는 서울 전체 25곳의 자치구 가운데 10곳에서 정 후보보다 많은 표를 얻었는데, 특히 오 후보의 역전극은 강남, 서초, 송파, 이른바 '강남3구'와 용산, 영등포 등 '한강벨트'의 표심 덕이란 분석입니다.

전체 득표율에서 정 후보에 약 1%p 이긴 오 후보는 강남과 서초에선 각각 30%p 넘는 격차로 정 후보를 따돌렸고, 용산에선 16.87%p, 영등포에선 3.82%p 앞선 걸로 집계됐습니다.

재건축, 정비사업 등 부동산 문제에 민감한 지역으로 꼽히는 곳들이라 부동산 표심의 반영 아니냐 해석도 나옵니다.

'잠룡'으로 불려온 오 후보의 차기 대선 가도에도 청신호가 켜진 거란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, 민주당이 서울 25곳 구청장 중 종로, 성동 등 17곳을 가져갔고, 서울시의회 전체 118석 가운데 81석을 차지할 걸로 예상되면서 오세훈 5기 시정은 우선 협치란 과제부터 풀어야 한단 관측입니다.

핵심: 오세훈 후보가 당선 후 바로 서울시장 업무에 복귀했다.

(2)기사/뉴스요약

<앵커>

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어제(3일) 낮 1시쯤 서울 송파구에서 처음 감지됐습니다. 송파구 12곳, 강남구, 광진구까지 여기저기서 문제가 나타난 건 오후 4시 반 무렵으로, 투표가 끝나야 하는 저녁 6시에도, 일부 투표소에선 긴 줄과 함께 대기표를 나눠주는 진풍경까지 펼쳐졌습니다. 몇 시간을 기다렸지만 투표하지 못했다는 유권자들이 잇따랐고, 밤 10시에야 투표가 끝난 곳도 있습니다. 주민들은 선관위가 엉망으로 대처하면서 소중한 투표권을 박탈당했다고 분노했습니다. 먼저 혼란스러웠던 어제 상황을 안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.

<기자>

어제 저녁 7시 반 서울 송파구 잠실2동 5투표소 모습입니다. 투표 마감 이후 1시간 반이 지났는데 투표함은 개표소로 향하지 못하고, 투표를 하지 못했다는 유권자들의 항의가 잇따른 가운데 대기표를 받은 사람들만 투표할 수 있다는 안내조차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습니다.

[서울 잠실2동 주민 : 2시간 기다리다가 아이 밥 먹이고 왔어요.]

[투표소 관계자 : 잠시만요, 네. 5투표소 투표 마감하겠습니다. 여기 투표함 봉인하겠습니다.]

[서울 잠실2동 주민 : 아니, 여기서 매뉴얼을 어겨놓곤...]

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서울에서만 14개 투표소에서 확인됐습니다.

[서울 잠실2동 주민 : 투표용지가 안 오면 모른다고 그렇게 책임 없이 그 말만 하면 어떡해!]

[서경희/서울 청담동 : (투표소 관계자가) '지금 투표용지가 9장밖에 남지 않았다, 여기까지만 투표하고 투표가 안 된다' 별일 아닌 것처럼...]

답답해하는 유권자들에게 상부의 지시를 또 기다려야 한다는 대답만 반복했습니다.

[선관위 관계자 : 순서대로 50명은 일단 투표를 하세요. (그다음은요?) 그다음은 또 우리 상부의 지시를 받아야죠.]

[서울 문정동 주민 : 개판이에요, 진짜. 이거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.]

다른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종이봉투에 담아 가져왔다는 목격담도 나왔습니다.

[(지금 대기표를 왜 이제야, 6시 지나서 나눠주시나요?) 유효하다는 보장이 있어요, 6시 이후에 하면?]

유권자들의 항의를 피해 허둥지둥 투표함을 들고 나온 관계자들이 투표함 이송차량마저 헛갈려 하는 모습까지 포착됐습니다.

[서울 잠실2동 투표소 관계자 : ((투표함 이송 차량이) 이거 맞아요?) 확인해야 할 것 같아요. (차량) 번호 모르는데. 아, 왜 전화를 안 받아.]

결국 일부 투표소에선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는 물론이고, 개표 상황이 중계 중인 밤 10시에야 투표가 마감됐습니다.

[이수진/서울 잠실2동 : 이번에 시장 뽑고 구청장 뽑고 구의원 시의원 다 뽑는데 교육감까지, 한두명 뽑는 것도 아닌데...]

유권자들 사이에선 초등학교 선거도 이렇게 안 한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.

[노원섭/서울 잠실4동 : 반장 선거만 해도 그 인원수에 맞춰서 그것보다 더 넉넉한 투표용지를 다 배부하고 투표하는 게 상식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...]

핵심: 투표가 끝나야 하는 저녁 6시에도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를 하지 못하는 사태가 곳곳에서 벌어졌고, 투표를 하지 못한 유권자들의 항의가 이어졌다.

● 일일키워드

순 번	키워드	설명	출처
1	긴급조정권	노동조합의 파업 등 쟁의행위가 국가 경제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심각하게 위협하게 할 위험이 있을 때, 정부가 강제로 파업을 중단시키고 강제 조정 절차에 들어가도록 하는 조치로, 1963년에 처음 도입되었다.	네이버 시사상식사전
2	컨피덴셜 컴퓨팅	클라우드 환경에서 연산 중인 데이터(In-use)를 암호화된 상태로 보호하는 기술이다. TEE 기반 하드웨어 격리를 통해 운영체제나 관리자도 데이터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며, 금융·의료·AI 협업 등 고보안 산업에서 활용된다. Zero Trust 보안 모델의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.	네이버 시사상식사전